

# 민천주보

제2602호

2020년 2월 2일 | 주님 봉헌 축일 (축성 생활의 날)

발행 천주교 인천교구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heon.or.kr



모래내 성당 — • — 부개2동 성당 — • — 부개동 성당

**입당송** | 시편 48(47), 10-11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하  
나이다.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당신 이름처럼  
땅끝까지 울려 퍼지나이다. 당신 오른손에는 의로움이  
넘치나이다.

**제1독서** | 말라 3, 1-4

**화답송** | 시편 24(23), 7.8.9.10(© 10L.C)

- ◎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입니다.
-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
-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  
싸움에 용맹하신 주님입니다. ◎
-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
-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

광의 임금님입니다. ◎

**제2독서** | 히브 2, 14-18

**복음 환호송** | 루카 2, 32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네. ◎

**복음** | 루카 2, 22-40(또는 2, 22-32)

**영성체송** | 루카 2, 30-31 참조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모든 민족들 앞에  
마련하신 구원을 보았나이다.

교구장 사목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루카 11,28)

이 주의 성경쓰기표

요 일	2(주일)	3(월)	4(화)	5(수)	6(목)	7(금)	8(토)
성경 / 장	마태 23,37-24,28	24,29-24,51	25,1-25,30	25,31-26,13	26,14-26,35	26,36-26,68	26,69-27,26
확 인							

# 초막을 허물어라

강의를 해준 인연으로 수녀님들의 첫 서원 미사 주례를 부탁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원자들이 선택한 복음은 주님의 거룩한 변모(마태 17,1-9)였습니다. 강론을 위해 복음을 묵상하던 중 이 초년병 같은 수도자들이 새삼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베드로가 지어 바치겠다고 초막은 실상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상징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땅을 뒤로하고 떠났던 아브라함, 모세와 백성들의 광야 40년, 변변한 거처하나 없이 떠돌던 예언자들, 모두 순례자라는 숙명을 짊어졌던 이들이었습니다. 초막은 그러니까 그들 삶의 고단함을 의미하는 동시에 약속에 기대어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던 모든 여행자들의 운명과의 같은 것입니다. 초막은 돌로 지은 집이 아니라 쉽게 짓고 허물 수 있는 여행자들의 임시거처입니다. 그것마저 마다하고 스승은 제자들을 재촉해 다시 산길을 내려왔던 것입니다. 스승 역시 저 옛날의 순례자들처럼 하느님 약속에 기대어 '알 수 없는 내일'에 자신을 내어맡긴 것입니다. 산길을 내려오던 스승, 실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느님의 뒷모습입니다. 이제 막 봉헌생활의 문턱에 선 서원자들, 적어도 이런 복음을 선택한 이들이라면 수도 없이 짓고 허물기를 반복해야 할 이 여정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새삼 그들이 대견했던 이유입니다.

봉헌된 아기 예수와 함께 오늘 복음의 또 다른 주인공은 아기의 부모들이겠습니다. "반대의 표징"이 될 것이라는 시메온의 말 앞에 여전히 소녀 같은 어머니, 마리아의 표정은 어떠했을지 궁금합니다. '놀랐다'는 루카의 묘사는 가브리엘 천사의 탄생 예고(루카 1,26이하)를 듣던 마리아의 놀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놀람들은 그러나 경이로움과는 거리가 있는, 오히려 막무가내로 밀어닥치는 폭풍우 앞에서 느낄 법한 당혹스러움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작은 여인의 위대함은 두려운 미지의 운명을 "곰곰이" 숙고했다는 것입니다. 저 옛날 하느님의 약속에 신뢰를 품고 집과 땅을 버려두고 길을 나섰던 첫 여행자들처럼, 그도 '초막'을 허물고 떠날 줄 알았던 것입니다.

물론 루카는 탄생 예고와는 달리 시메온의 쾌청하지 않은 예언 앞에 부모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기록되지 않은 문장 속에 실로 부모들의 진짜 봉헌이 숨어있겠습니다. 봉헌된 것은 아기이지만 부모들은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처럼 분명 아기가 짊어질 운명에 자신들의 운명마저 엮고 포개어 함께 봉헌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피앗(fiat)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 2독서의 히브리서는 모든 점에서 인간과 같아진 하느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위로하기 위하여 고난을 짊어졌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영원이 유한을 위로하기 위해 스스로 불완전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낮춤은 인간을 위해 자신을 내어준 하느님의 '봉헌'인 동시에 인간, 이 보잘 것 없는 운명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한 하느님 '일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봉헌은 뭔가를 안에서 밖으로 내어놓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상 나의 것이 아닌 것을 제 것으로 삼는, 밖에 있던 것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용에 가까운 것입니다. 미지의 내일에 자신을 밀어넣는 것은 이 알 수 없는 길을 마련한 하느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삼는, 그 길에 나의 운명을 엮고 포개 그분과 일치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흔히들 하느님을 향한 봉헌을 뭔가 그럴듯한 나의 것을 희생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렇게 따진다면 사실 참된 봉헌은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도리어 내가 선물 받는 것이겠습니다.

며칠 후면 '거룩한 변모'를 복음으로 선택했던 수도자들이 드디어 종신 서원을 합니다. 초막을 얼마나 짓고 부셨을지, 여정을 시작할 즈음 '나의 계획'으로 가득했던 가방은 얼마나 단출해졌을지 궁금합니다. 그분이 마련한 놀라운 여정에 언제나 홀연히 떠날 가난한 순례자로 서있길 기도해 봅니다.



장동훈 빈첸시오 신부  
중1동 주임 겸 인천교회사연구소 소장

## 이주의 암송구절



너희는 나의 규칙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레위 20,8)

# 마카베오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부정적인 의미였지만, 그가 중요한 인물임을 이미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다신론을 바탕으로 한 헬레니즘 문화를 유대인들에게 강요한 셀레우코스 왕조의 임금입니다. 좋게 이야기해서 문화의 강요이지, 그가 야훼 하느님만을 섬긴 유대인들에게 이방신들을 섬기도록 강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강요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무자비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강요 속에서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자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노력했던 유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로 마카베오기 상권과 하권이 담고 있습니다.

마카베오라는 이름은 마타티아스라는 인물의 셋째 아들 유다의 별칭이었고, 이후에 마카베오 가문 전체의 호칭으로 사용된 이름입니다. 마카베오기는 상권과 하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권과 하권으로 구성된 책을 이미 보았습니다.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입니다. 시대의 순서로 자연스럽게 상권에서 하권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마카베오기는 내용이 상권에서 하권으로 이어지지 않고, 비슷한 시대를 배경으로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먼저 상권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통치하기 시작한 기원전 175년부터 134년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도록 강요하는 정책에 무력으로 저항한 마카베오 가문의 항쟁이 전체 이야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유다의 항쟁(3,10-9,22)을 시작으로, 요나탄의 항쟁(9,23-12,53)과 시몬의 항쟁(13,1-14,3)이 묘사됩니다. 마카베오기 상권은 시몬의 죽음과 동시에 하스모네아 왕조의 시작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마카베오 가문이 이렇게 이방인의 통치에 저항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느님과 율법에 대한 공경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열정과 계약에 대한 충실함은 이 책을 구성하는 가장 큰 주제입니다. 마카베오 가문이 성전을 탈환하고 정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하느님께 대한 신실함이었었고 하느님 구원의 명확한 표징입니다.

하권의 시대적 배경은 상권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기원전 176년부터 161년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권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면, 하권

은 종교적인 관점을 더욱 부각합니다. 역사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권능과 다가올 메시아 왕국이 부각됩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 하권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을 탈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유대 마카베오를 하느님의 도구로 바라보면서 성전을 이야기 전체의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마카베오기 하권이 전해주는 신학적 주제는 다양합니다. 우선, 고통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제시합니다. 유대인들이 받는 고통은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시험이자 교육이라는 사실입니다(1,5; 5,20; 6,12-16; 7,33). 또한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느님의 축복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3,1-3; 5,18-20). 이러한 맥락 안에서 순교자 엘아자르(6,18-31), 일곱 아들과 그들의 어머니(7장), 예루살렘의 원로 라지스(14,37-46)의 이야기를 마카베오기 하권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와 함께 부각되는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구원을 위한 도구입니다(1,6,8; 3,15). 마카베오기 하권에서는 기도에 관한 발전된 신학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구라고 하는 '중개 기도'입니다. 죽은 이들을 위한 살아 있는 이들의 전구(12,42)와 살아 있는 이들을 위한 죽은 이들의 중개 기도(15,14)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카베오기 하권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부활 사상입니다. 창세기부터 마카베오기에 이르기까지, 마카베오기 하권을 제외하곤 부활 사상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전통적 가르침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언급했던 신명기적 사고입니다. 하느님의 가르침에 충실하면 상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상선벌악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카베오기 하권은 이러한 전통의 가르침과는 달리 내세의 삶에 대한 인정과 희망을 들려줍니다(7,9.11.14.23; 12,44; 14,46).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성경의 부활 사상과는 차이를 보이지만,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단! 부활은 의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고, 악인은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 우리 모두 축성생활자

“수사가 뭐예요?”

“저는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에서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김태욱 안토니오 클라렛 수사입니다.”라고 소개하면 간혹 신자분들께서 다시 여쭙습니다. “수사가 뭐예요?” 처음에는 아주 상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저는 수사가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남자 수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 수도자를 수녀라고 하지요? 남자 수도자를 수사라고 부릅니다.” 전국에 약 1600여명, 대한민국 전체 인구대비 0.003% 아주 극소수의 남성들만 수사라고 불리니 일반 신자분들께서 남자 수도자의 존재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수도자는 뭐예요?”

안타까운 일은 신자분들 뿐 아니라 심지어 일부 신부님들도 수도생활에 대해 잘 모르십니다. 본당에 파견된 수녀님들께서 하시는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녀님들을 신부님들의 아랫 사람, 본당 허드렛일 하는 사람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도자는 평신도와 사제 중간 단계의 신분이 아닙니다. 수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삶을 더욱 철저히 따르며 살겠다고 하느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공적으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수도자 존재의 1차적 목적은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사셨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있습니다. 흔히 ‘복음적 권고’라고 하며 이를 ‘청빈, 정결, 순명’, 이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 복음적 권고의 삶

앞서 말했듯이 ‘복음적 권고’를 ‘청빈, 정결, 순명’으로 요약하지만 이 세 가지가 전부는 아닙니다. 청빈은 단순히 가난하게 사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청빈’은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욕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이 가난한 자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결’은 단순히 금욕생활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그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세상 모든 이를 형제자매로 받아

들이는 사랑의 삶을 의미합니다. ‘순명’은 기계적 복종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의 뜻에 따라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서 바치신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뜻에,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적 권고의 삶은 수도자 자신의 청빈, 정결, 순명이 아닌, 그리스도의 청빈, 정결, 순명을 살기위해 노력하는 삶입니다.

## 우리 모두 축성생활자

수도자들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축성을 통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적 권고’의 삶을 살도록 축성생활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복음적 권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세상 안에서, 구체적으로 가정과 직장 안에서 복음적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마태 6.24)는 주님의 권고를 기억하면서, 나의 욕망을 쫓기 위한 재물을 모으기보다, 가난한 이 가운데 자리하신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 재물을 나누십시오. ‘우리나라’, ‘우리 가족’ 등 ‘우리’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개인적 이기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진 세상의 흐름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 자기 가족만이 아닌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확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가는 현대사회에서, 자기 자신의 뜻보다 하느님의 뜻을 먼저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소공동체, 지역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인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희생과 봉헌, 연대와 협력, 나눔과 포용의 의미를 생각하고 삶의 매 순간 복음적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축성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를 통해 받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의미를 되새기며 의미 있는 주님 봉헌 축일, 축성 생활의 날을 지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교구 행사

사제 연례피정



2020년도 교구 1차 사제 연례피정이 1월 20일(월)부터 23일(목)까지 인천가톨릭대 신학대학과 갑곶순교성지 영성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신학대학에서는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를 포함한 95명의 사제가 참여하였으며,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루카 10,26)를 주제로 이영근 아오스딩 수사(=성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도원)가 강의를 진행하였고, 전례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갑곶순교성지에서는 13명의 사제가 참석하여 김미라 교수(=한국 로고테라피연구소 소장)의 로고테라피 강의와 성체조배를 하며 피정을 마쳤다. 2차 사제 연례피정은 2월 3일(월)부터 7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교구 행사

전국 성지순례 완주자 축복장 수여식



1월 14일(화) 성지개발 겸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정광웅 마르코 신부)의 주관으로 전국 성지순례를 완주한 신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성지순례 완주자 축복장 수여식을 진행하였다.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는 수여식에 참석한 19명의 완주자들에게 축복장을 수여 하였고, 기념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졌다. 정신철 주교는 “성지 순례의 본래 목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성지에서 기도하고 미사를 봉헌하며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축복장 수여식과 함께 완주자들은 성지순례를 통한 체험과 소감을 이야기하며,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다짐하고, 전국 성지순례 완주의 기쁨을 나누었다.

교구장 동정

설 합동 위령 미사



1월 25일(토) 답동 주교좌 성당에서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의 집전으로 설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하였다. 강론에서 정신철 주교는 “모든 일들이 올 한 해에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린다”고 새해 인사를 전하며, 첫 번째로 야고보서의 말씀과 함께 “물질주의를 조심하고 물질에 얽매이는 삶을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두 번째로 마르코 복음 말씀을 통해 “준비하는 종의 모습으로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지 말고 먼 미래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전했다. 미사 후 신자들은 분향을 하며 신앙 속에 한 해를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다.

선종 안내

이달에 기억해야 할 선종사제

성 명	선 종 일 자
이수일 제르바시오	2월 1일
파 빠뜨리티오	2월 8일
박 요셉	2월 9일
서병섭 베드로	2월 13일
장준 필립보	2월 18일

교구 알림

교구 홍보기자단 모집

취재를 통해 주님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할 교구 홍보기자단을 모집합니다.

- 자격요건: 만 65세 이하 남·여 신자
- 제출서류: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 마감: 3월 1일(주일)
- 접수: hongbo@caincheon.or.kr

후원 안내

‘하느님의 종’ 이승훈 베드로 성지 조성 후원 안내

- 신헌 131-016-645915 (재)인천교구천주교유지재단
- 성지 완성 후 후원 회원님의 이름을 성전에 봉헌할 예정입니다.
- ☎ 성지개발 위원회 032-765-6916

# 청소년사목국 소식

## 청소년신앙자치활동 제26회 바다의 별 축제

지난 1월 18일~19일, 인천교구청에서 제26회 바다의 별 축제가 있었습니다. 바다의 별 축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청소년들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축제입니다. 청소년봉사자로 양성되고 성장하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단순하게 축제를 준비하는 활동이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고 필사하며 말씀에 다가서고, 로마미사경본 총지침을 공부하며 더욱 풍요로운 전례를 만들어 갑니다. 26년의 전통을 가진 이 축제가 단순한 청소년 축제가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 청소년부국장 유동식 마리오 신부

#### ■ 만수6동 천지현 안젤라메리치

9월29일 기획팀 첫모임부터 1월 19일까지 113일이라는 시간동안 만들어진 축제, 부족했던 저와 함께해준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 ■ 소사 김재혁 베드로

축제를 준비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또 친구들과 그런 힘든 점들을 함께 나눠가며 준비하니 훨씬 수월해지고 재미있었습니다.

#### ■ 답동 헨다윈 체칠리아

신앙생활과 함께 봉사할 수 있어서 뜻깊은 경험이었고 두 달 동안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들었지만 좋은 사람들과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 ■ 만수2동 박세진 율리엄

축제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저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 ■ 간석4동 이서운 스테파니아

바다의별 축제가 끝난 다음날, 뭔가 허전합니다. 봉사자들 모두 수고했어요.



## 가톨릭 청소년 성취포상제도 포상식 및 발대식

청소년사목국에서는 지난 1월 19일(주일)에 가톨릭 청소년 성취포상제도 제11회 포상식 및 제7기 금강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포상식에서는 가톨릭 청소년 성취포상제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금강 포상(사우동 김수민 엠마누엘라)을 받게 되었으며, 은장 5명, 동장 14명이 포상을 받았고, 새롭게 5명이 금강 발대를 했습니다.

동장 포상자는 5월에 제주도로, 은장 포상자는 8월에 필리핀으로, 금강 포상자는 9월에 미국으로 각각 포상 활동을 떠날 계획입니다.

### 교구청 알림

#### ◆ 새반장학교

때: 시내지구(2/18~19-주안1동 성당)  
김포, 강화지구(2/21-김포 성당)  
신청: 신청서 팩스 접수, 사무장에게 문의  
☎ 북음화사목국 032-765-6962

#### ◆ 19기 선교사학교 모집

때: 3/5~6/25, 9/3~11/19 매주(목) 19:30  
곳: 교구청 복자 이안나 홀  
수강료: 20만원 / 마감: 2/16(주일)까지  
☎ 032-762-9717, Fax 032-772-9717

#### ◆ 지구를 위한 미사

때·곳: 2/13(목) 11:00 사회사목센터 4층  
☎ 환경사목부 032-765-7255

#### ◆ '평화의 시선' 월례미사와 특강

미사 후 난민 당사자들과 대화하는 '사람책' 행사로 진행  
때·곳: 2/5 19:00 노동자 센터 ☎ 032-765-6970

#### ◆ 무료 노동상담

해고, 체불임금, 산업재해, 비정규직 차별 등  
☎ 교구 노동사목 인천 032-502-3009,  
부천·시흥·김포 032-679-1308

#### ◆ 청년사순피정 '청년들의 네가지 사순이야기'

때: 2/28~3/1 [2박 3일] 6만원-20명  
곳: 예수성심전교수도회 강화 피정의 집  
☎ 리차드 수사 010-8082-6955

#### ◆ 노틀담 성서백주간 모임

때·곳: 월-10:00 팀 / 14:00 팀 노틀담수녀회  
신청기간: 1/11~2/15 ☎ 010-7108-6318

#### ◆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 역사, 평화 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모든 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하여 접수 가능)  
자연 순례 피정: 2/13~15, 3/27~29  
한라산 눈꽃산행: 2/22~24  
제주 성지순례: 3/4~7, 3/9~12, 3/14~17  
☎ 02-773-1463, 064-756-6009

### 교육 | 피정

#### ◆ 살레시오회 중고등부 겨울 성소피정

대상: 예비 중1~고2  
때: 2/22~23  
곳: 살레시오회 관구관 4층(여의대방로 65)  
☎ 010-7427-4627, 010-3894-1332

교육 | 피정

◆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3월피정

겨울 침묵 피정: 2/11(화)~13(목)  
월 피정: 2/8(토), 3/14(토) 10:30~16:20  
☎ 02-990-1004

◆ 겨자씨 믿음 1일 피정

주제: 내 마음안에 겨자씨의 믿음을 심자!  
강사: 정대영 모세 신부  
때·곳: 2/3(월) 9:30~17:00 답동 문화관 3층 성명홀  
☎ 032-761-6301, 010-9227-3265

◆ 가정선교회<찬양과 회복 피정>

때·곳: 2/9(주일) 9:30~13:30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첫 시간: 고영민 단장과 손현희 악기팀의 찬양  
둘째 시간: 이현주 회장 강의 및 내적치유 기도  
셋째 시간: 한철호 신부 미사와 강론  
☎ 010-6281-8626, 010-4077-3954  
대표 02-777-1773

◆ 예수회센터 영성강좌(3월 개강)

·파스카의 신비-십자가와 부활의 영성(신설)  
매주(화) 14:00~16:00 김미정 수녀  
·영성과 철학상담-아픈 영혼을 '철학'으로 치유하기  
매주(화) 19:00~21:00 박병준 신부, 홍경자 박사  
·영성의 향기: 근대 영성의 거장들  
첫째, 셋째(수) 10:00~12:00 심종혁 신부  
☎ 02-3276-7733 / http://center.jesuits.kr/

◆ 제4차 성령 안에서 말씀과 함께하는 치유 피정

때·곳: 3/14(토)~15(주일) 의왕시 아론의 집  
주제: '돌을 치위라.'(요한 11, 39)  
지도: 정건석 신부, 유용덕 신부  
주최: 미국 중남부 봉사자 협의회 / 하찬사  
☎ 010-2855-9082, 010-3319-9082

◆ 한국교회사아카데미 7기 신입생 모집

과목: 박해시대 교회사, 근현대 교회사, 중국교회사, 북한교회사, 건축사, 예술사, 순교 영성사 등  
강사: 노길명, 변진홍, 장정란, 서종태, 김정숙, 김정신, 윤진 등 / 개강: 3/3  
수업: 매주(화) 18:30~21:20 [15주]  
접수: 1/7~2/ 21  
☎ 새남터성지 안내소 070-8672-0327

◆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때: 2/11~13, 2/19~21, 2/27~29, 3/5~8, 3/11~13, 3/17~19 ☎ 064-796-9181

◆ 예수회 후원회 금요 침묵 피정

때·곳: 매주(금) 10:00~13:00 예수회센터  
무료, 미사봉헌 ☎ 예수회 후원회 02-3276-7777

미사 | 행사

◆ 구치소 미사 잠정 중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폐렴) 관계로  
2/4~11까지 미사를 잠정 중단합니다.  
☎ 010-9046-5744

◆ 운전기사 사도회 월례미사

때·곳: 2/7(금) 사회사목센터 4층 강당  
봉사하며 선교하시고자 하는 분들 초대  
☎ 010-6327-3427

◆ 이주노동자목 후원회 미사

외국인 무료진료소 물리치료사 자원봉사자 구함  
때·곳: 2/4(화) 10:00 만수6동 성당  
☎ 032-765-1094

◆ 장애인연합회 월례미사&신앙특강

때: 2/15(토) 11:00 미사 / 13:00 특강  
곳: 사회사목센터 ☎ 032-761-3992

◆ 교구 전례꽃꽂이회 월례미사

때·곳: 2/6(목) 14:00 박순집 베드로 홀  
☎ 010-4713-2128

◆ 매주고리에 찬양단 찬양 대피정

때·곳: 2/10(월) 10:00~17:00 연수 성당 대성전  
회비 없음, 김밥 판매(2천원, 미리 주문), 개인컵 준비  
☎ 연수 성당 사무실 032-822-2271

◆ 수도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책읽기

때: 2/6부터(목) 10:00~12:00 [10회]  
40~60대 남, 녀(선착순 10명) / 12만원(도서비 별도)  
☎ 바오로딸 010-9834-1611

◆ 사도들의 모후 모임(천주교 사도직 연합회)

때·곳: 2/7(금) 14:00~17:00 사회사목센터 401호  
강사: 김태광 신부(강의, 미사, 고해성사)  
☎ 010-3809-0200

◆ 오순절 평화의 마을 후원회 미사

때·곳: 2/7(금) 11:00 주안1동 성당  
☎ 031-884-0533

모집 | 일반

◆ 교구 가톨릭 합창단 단원 모집

때·곳: 매주(월) 20:00 사회사목센터 B1  
성가봉사 가능한 남, 여 ☎ 010-5392-0280

◆ 가톨릭 클래식기타 합주단 초급반 모집

때: 매주(수) 19:30~ 60세 이하 여성신자  
부천지역: 중2동 ☎ 010-2668-5324

◆ 시스띠나음악원 인천반 회원 모집

평화방송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의 성가발성  
때: (목) 19:00~20:30 ☎ 02-363-2258  
곳: 교구 사회복지센터 2층 세미나실(중구 답동로 23)

◆ <신난다 첫영성체> 교사연수

때·곳: 2/16(주일) 교구청 청소년국 강의실  
☎ 010-3193-3348(생활성서사 홈페이지 참조)

◆ 가톨릭고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가톨릭 신학 26과목 /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접수: ~2/7(금)까지(우편신청가능)  
☎ 02-745-8339 / ci.catholic.ac.kr(원서다운가능)

◆ 콜롬반평신도선교사(해외선교) 관심자 모임

때: 2/9(주일) 14:00~17:00 / 대상: 만 23~39세(남·여)  
곳: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 02-929-4841 / www.columban.or.kr

◆ 선교아카데미(해외선교사학교) 교육생 모집

대상: 해외선교 및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 / 기간: 3/5~9/25 매주(목)  
곳: 한국외방선교회 본부(서울 성북동)  
수강료: 80만원(식대포함) ☎ 02-3673-2528

◆ 정신분석 및 영성상담

대인관계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모,  
성직자, 수도자, 집단상담  
곳: 성 빈센트 정신분석상담센터(서울 동선동)  
☎ 02-926-4261, 차영임 수녀 010-4261-1113

◆ 문화예술교육원 1학기 수강생 모집

수채화, 유화, 아크릴화, 한국화, 민화, 이콘,  
사진, FLUTE, 우쿨렐레, 첼로, 전례꽃꽂이,  
고전문학, 현대문학 / 개강: 3/2, 접수: 2/2부터  
☎ 032-830-7004 / life.iccu.ac.kr참조

◆ 28회 글로벌 영어연수 참가자 모집

출국: 2/29(토) 4주 이상 선택 / 국가: 필리핀, 캐나다  
대상: 성인 및 대학생 / 특징: 학비 일부 지원 사업  
☎ 광주청소년수련원 070-4365-7297

순례 | 기타

◆ 해외성지순례

3/9~14 베트남 성모발현성지 125만원  
라방성지 1박 피정 포함  
지도: 김선태 야고보 신부  
4/20~5/2 이스라엘-요르단 429만원  
와디람 사막체험 포함  
지도: 성호영 다니엘 신부  
☎ 032-773-5995

◆ 성지순례

3/5 짜께우, 라방, 다낭(국적기 5일) 130만원  
동행: 이희진 신부  
☎ 최금옥 최형베드로 032-666-9385

◆ 가톨릭 해외 성지순례 안내

4/20 유럽 4개국 [12일] 375만원  
4/21 이스라엘 요르단 [11일] 425만원  
지도신부 동행-매일 미사  
곳: 명동 가톨릭회관 605호  
☎ 010-5235-3533

◆ 한국 예수회 후원회 해외 성지순례

2/13 베트남 성모성지(다낭) [5일] 160만원  
3/23 터키, 그리스 [12일] 370만원  
4/13 이태리 일주 [12일] 370만원  
5/25 베트남 성모성지(다낭) [5일] 135만원  
☎ 02-722-8366

◆ 제주도 관광 안내

제주운전기사사도회에서는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팬션, 골프 예약 가능  
☎ 064-758-6476, 010-4566-6476